

오늘은 교회 창립 15 주년 주일입니다. 교회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교회 하면, 긍정적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를 겁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ppt 설명)

그럼 15 주년을 맞는, 우리 콜럼비아 제일장로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매년 제직회 때 교회 사역 전반을 평가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내부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우리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87 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뜻을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인은 계 21 에 나온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노래합니다. 시인이 노래한 시온산은 계 21:27 어린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건,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복된 회중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한분도 빠짐없이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시 87 편 함께 읽겠습니다.

1.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2.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데다
3.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데다 (셀라)
4.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5.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데다
6.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7.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이 시는 메시아가 와서 세울 시온산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시입니다. 몇 번 되풀이해 읽어도 모를 정도로, 시가 장대하고 급작스럽습니다. 이 시에서 시온산은 1, 5 절 세번 나오지만, 메시아가 오셔서 세울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로 시온산을 노래합니다. 지리적으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예적으로는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처음 나온 게 삼하 5:7 입니다. 원래 가나안 원주민 여브스족 땅 예루살렘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수도로 정치와 종교 중심지가 됩니다. 성막 대신 솔로몬 성전을 짓고, 예배의 중심지, 그리고 하나님 언약이 세워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성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시온성은 예루살렘 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뜻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시온산을, 빼앗긴 조국 땅 전체로 봅니다. 시 137: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에게는 고국에 대한 향수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그들이 거룩한 땅 시온에 들어갈 것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그러나 시온이 단지 구약 교회만 뜻하지 않습니다. 히 12:22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을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구약과 신약시대,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늘의 예루살렘, 우주적 하나님 나라를 시온산으로 본 겁니다. 신학적으로 universal church 보편의 교회가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전우주적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된 살아있는 성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시온입니다.

시편 87 편은 시온의 노래입니다. 일곱절 짧은 시지만, 여러 굵직 굵직한 주제가 나옵니다. 1-3 절 성산, 시온의 문, 하나님의 도성, 다 동일한 대상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4 절 5a, 민족의 발생을 노래하는데, 라합과 바벨론, 블레셋과 두로, 구스까지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힌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온산과 무슨 상관이 있어, 여기 나오니까?

7 절 결론은 찬양입니다. 결론 7 절을 중심으로,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각 부분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7 절 시작이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한 건, 시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축제를 가리킨 겁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축제가 벌어지는데, 대표적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그런 축제가 있고, 내막없는 축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이 서로 비슷하고, 대개는 생명과 관계됩니다. 생명이 회복된 걸 기념해 축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축제에는 그 민족이 살아온 여정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다음 주 한국 추석인데, 추수해 생명이 유지된 걸 감사하는 축제 아닙니까?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상신이라 그렇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에 대한 환희를 나눈 게 바로 축제입니다.

고대인은 일상적으로 늘 생존의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약성도들은 여호와 신앙과 연결시켜 축제를 가졌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 생명에 대한 갈급함, 생명을 지켜주신 분께 대한 신뢰, 이런 게 축제가 된 겁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난 걸 기념한 우리 광복절같은 축제입니다. 오순절 초막절은 우리 추석같은 축제입니다. 그 점에서 예배는 영적 축제입니다. 예배는 생명의 환희를 노래한 의식이란 말씀입니다. 즉 예배는 생명주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을 보장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생명의 축제입니다. 그런 예배가 현대 들어와, 외국되었습니다. 저는 현대 교회의 타락이, 예배의 타락에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예배받는 분은 안중에도 없고, 복받기 위해, 순서만 습관적으로 따릅니다. 예배 대상의 이름만 하나님이지, 그 내용은 서낭당이나 돌부처와 다름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 수준이 개신교가 불교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진정 예배답자면, 무엇보다 생명에 대해 예배자의 영적 측수가 예민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같은 찬송, 반복된 몸짓, 형식에 젖어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 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청중들 심리적 카타르시스만 추구하는 자극적인 예배에 젊은이들이 몰립니다. 과거에는 예배가 형식주의에 많이 빠졌다면, 요즘은 '열린 예배'라든지, 자극적인 예배 형식들이 들어와 교단 구분없이 젊은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집니다. 어느 대형 교회 예배 장면을

유튜브로 보다, 마음이 너무 불편해 꺼버렸습니다. 나이트 클럽에서 쓰는 싸이키 조명이 돌고 약에 중독된 듯 자기 도취에 빠진 모습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배 받는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인간이 활개치는 카니발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극적인 예배는 대개 죄의식을 강조합니다. 예배자의 죄의식이나 약점을 파헤치고, 거기서 용서받은 퍼포먼스를 통해 예배자의 심리적 카타르시스를 불러 일으킵니다. 예배는 영적 축제라고 했습니다. 축제는 준비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축제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혼자 들떠 야단내고 말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카니발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생명의 신비로운 현상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할 때 얻는 가장 귀한 신앙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되면, 예배는 절대 예배로 안 끝납니다. 반드시 삶 전체로 파급이 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윤리수준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일치되는 게 가장 충만한 삶이고, 그 보다 더한 축제가 어딴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속으로, 주님 임재 속으로, 충만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극심합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건 없어도 사람 삽니다. 그러나 물 없으면 못 삽니다. 어떤 보석보다 한없이 귀한 게, 실은 흔하디 흔한 물이나 맑은 공기같은 그런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그런 변화된 시각으로, 이 세계를 생명 중심으로 바라볼 때, 예배가 예배 다워지고, 예배자 삶도 한결 반듯하고 풍요로와 집니다.

축제에 온 사람들 노래가 뭘니까? '내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여기 '네게 있다'는 건,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너'를 경칭 '당신'으로 교쳐 번역해야 맞습니다. '내 모든 근원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인칭 단수 여성형 어미라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너는 시온으로 번역할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시온도 여성형이 아니라 무성입니다. 어쨌든 문법적으로는 그래도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시온에서 모든 생명이 나온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번역 같습니다.

좀전에 이방민족과 시온산이 무슨 상관이나, 질문만 던지고 말았습니다. 시온이 생명의 근원인 건 시온산에 사는 주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4 절 여러 민족들 라합—이집트를 비유적으로 부른 겁니다—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 이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합니다. 맥락적으로는 시온산에서 벌어진 축제에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 많은 민족도 참여한 걸 연상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함께 많은 이방민족이 순례왔습니다. 그걸 보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아적 소망을 예언으로 노래한 겁니다.

이방민족들 보면서, 그럼 저 사람들은 어찌될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교회 바깥 사람들, 타종교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조상들 특히 온 국민이 숭앙하는 이순신 장군, 그런 분들 운명은 어찌 될까 그런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시인도 이방민족 보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겁니다. 어떤 때는 이방민족이 자기네 믿음을 흔들고 괴롭히니까, 저런 것들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해! 그런 생각하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결국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생명의 뿌리인데, 그냥 두시지 않겠지,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기독교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 생명의 근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궁극적인 분이시라, 그 분 안에서만 생명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이 뜻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생명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질없어 보이는 그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종말론적 생명이 들어와 있는, 놀랍고 엄위로운 사실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럴 때 현실이 살아나고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력이 생깁니다.

15 주년을 맞는 우리 콜럼비아제일장로교회가 뭘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소망을 던질 수 있습니까? 외부 평가에 따라 반성하고, 결심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을 예배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생명력, 그리고 그 생명력에서 나오는 거룩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시편 87 편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당신 뜻을, 먼저 당신을 즐거워하며 우리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래서 우리 삶 전체를 영적 제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콜럼비아 제일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